

#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of Married Couple\*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고정자

강사 김갑숙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essor : Jung Ja Ko

Lecturer : Gab Sook Kim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sual rela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of married couples.

For the data set 434 married couples living in Pusan, Korea were chos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 SD,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re higher for husbands than wives. Whereas psychological distress is higher for wives than husbands.

Second, for husbands, husband's level of education, job satisfaction,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and job stress have significant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For wives, wife's level of education,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and husband's job stress have significant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Third, for husbands,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have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distress. For wives, husband's job stress have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distress.

Fourth, for husbands, job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Besides, husband's age, husband's level of education, job satisfaction, job stress,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For wives, marital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Besides, wife's level of education, husband's job stress,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지방대 육성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I. 서론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화 현상,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구조의 기능이나 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부부간의 역할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부부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은 더 강하나 결혼의 불안정성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로 말미암아 부부가 같이 보내야 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부간에 정서적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성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문제가족과 해체가족에서 파생되는 청소년 비행, 이혼율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최규련, 1987). 그러므로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가족학 영역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적 생존과 성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극복하였으나, 경제 성장만으로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지 못하였고 오히려 인간성 상실, 환경파괴와 공해,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 병리현상을 수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삶의 양적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인간의 건강이나 생활환경, 교육, 복지 등 실제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은 가족문제를 더욱 더 가중시켜 부부간의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그로 인한 아동유기, 가족해체, 가족의 동반 자살 등 심각한 가족 병리현상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이나 삶의 질 수준은 극히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심리적 복지는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포함한다(장재정, 1987).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결혼만족도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관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디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며(김명자·박성연, 1989; 최규련, 1993; Voydanoff와 Donnelly, 1989), 삶의 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결혼만족도는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고정자·김갑숙, 1996; 박미석, 1996; 이희정·이숙현, 1995; Andrews와 Withey, 1976; Berry와 Williams, 1987; Campbell et al., 1976; Hirsch와 Rapkin, 1986)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심리적 복지인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척도를 부분적으로 적용시켰을 뿐이고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 삶의 질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볼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즉 한 사람의 경험은 자신의 다른 영역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 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이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 부부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며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입안에 기본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아주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므로 개념 정의나 측정이 아주 어렵다. 심리적 복지는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의 지표가 되

는 이론적 구조에 따라 측정된다. 즉 증후군과 같은 객관적 측정과 정신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합쳐져 심리적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쓰인다(전영자, 1991). 즉 심리적 복지는 건강과 객관적, 주관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 및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우울감, 불안감, 디스트레스,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장재정, 1987; 진미정·옥선화, 1994). 이러한 측면을 토대로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복지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결혼만족도는 부부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며 부부 자신의 행복도와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으로 결혼만족도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결혼만족도

부부관계는 부부 자신의 행복도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인성과 자녀의 미래 결혼생활에 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의 성공도, 행복도, 적응, 결혼의 질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고 연구자에 따라 연구범위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행복, 만족, 즐거운 감정이라는 주관적 감정을 의미한다(Hawkins, 1968). 즉 결혼만족이란 각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느끼는 만족스러운 감정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에는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측면을 포함하여 부부관계뿐 아니라 건강, 경제, 사회활동, 직업, 자녀, 친·인척 관계, 여가, 친구, 성격 등에 대한 만족감 정도가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결혼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양희 외, 1992; 임정빈 외, 1989; 최규련, 1993, 1995; Albrecht와 White, 1984; Vannoy와 Philliber, 1992).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이 낮고, 결혼 지속연수가 짧을 때, 남편의 직업 지위와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을 때, 자녀수가 적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김경신·김오남, 1996; 김화자·윤종희, 1991; 손현숙, 1995; Jenkins와 Folk, 1994; Vannoy와 Philliber, 1992). 그러나 남편의 직업과 부부의 교육수준은 결혼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이정연, 1987; 조은숙, 1990)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성 취업이 결혼만족에 부정적(임정빈·이종숙, 1989; Kingston & Nock, 1987)이라는 연구와 긍정적이라는 연구(이정우, 1974; 이희정·이숙현, 1995; Houseknecht, 1981; Spitz, 1988), 그리고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결혼만족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전춘애·박성연, 1996) 등 여성 취업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면 부부 각자의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강은령, 1989; 김양희 외, 1992; 이정숙, 1990; 임정빈·정혜정, 1986; 최규련, 1993; Campbell et al., 1976; Hanson과 Sloane, 1992; Hirsch와 Rapkin, 1986; Pleck, 1985), 남편의 지지가 높고 남편의 가사조력 정도가 높은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김경신·김오남, 1995; 박미령, 1987; 한경미, 1995; Berry와 Williams, 1987; Pleck, 1985; Ulbrich, 1988; Vannoy와 Philliber, 1992)

### 2) 심리적 디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인 스트레스(Distress)로 구분한다. McCubbin과 Patterson(1979)은 디스트레스란 가족성원들이 유쾌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라 하였고, 이안나 외(1991)는 문제거리나 근심을 겪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긴장 또는 고통스런 상태라고 하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그리고 행동 및 정서적 통제의 상실로 구성되며(Veit와 Ware), 사회적 기능의 수행 능력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손상된

정도를 가리키는 지수(권경희, 1985)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은 심리적 손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요인이 디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고정자, 1994; Dohrenwend, 1973), 소득수준이 높을수록(권경희, 1995; 김명자, 198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나(권경희, 1985; 김명자, 1989; 이정우·최덕경, 1992; 신기영·옥선화, 1997), 고정자(1994)의 연구에서는 학력은 디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Coverman과 Sheley, 1986),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고은숙·김명자, 1993; 고정자, 1994), 남편의 지지도와 협조가 있을 때(Pleck, 1985; Spitz, 1988; Ulbrich, 1988) 우울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의 질적인 상태를 보다 잘 기술해 주는 사회지표를 모색하던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욕구 체계와 가치 체계가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되고,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삶의 질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규명하기는 어렵고,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도 다양하여 인간의 안녕과 복지정도를 나타내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Rice와 Tucker(1986)는 삶의 질은 물질적인 성취나 비물질적인 성취를 통해 인간이 얻게 되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라 하였으며, 박미석(1996)은 인간이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공보처(1995)에서는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떤 상태로 살고 있으며, 또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감 내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 영역에는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삶의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처음에는 사회환경, 경제, 정치환경 등 있는 그대로의 제 조건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에 치중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정책 결정에 필요하지만 이것이 국민 생활의 만족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성장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차적으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주관적인 삶의 지표는 개인이 생활 경험과 주관적인 지식에서 오는 복지, 만족 또는 행복을 그들 전체 생활이나 특정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상태를 평가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지표는 개인의 내면적인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여러 학자들이(고보선·임정빈, 1992; 노유자, 1988; 소연경·문숙재, 1983; 조수영, 1996; Andrew와 Withey, 1974; Olson, 1982; Shin, 1980) 삶의 질 척도를 개인적, 가정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세분화시켜 삶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가(고보선·임정빈, 1992; 박미금, 1994; 이종숙, 1989) 있는 반면, 고정자·김갑숙(1996), 박미석(1996)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고보선·임정빈, 1992; 김경동 등, 1983; 이기영, 1984; 하재구, 1986), 소득이 많을수록(김경동 외, 1983; 김재경·문숙재, 1992; 김종숙, 1989; 박미석, 1996; 이기영, 1984; Andrews와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였다. 그러나 수입 그 자체가 삶의 질을 만족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Beny와 Williams, 1987) 소득 적정감이나 재정적 스트레스, 상대적 박탈감 등이(이기영, 1984; Mammen, 1980; Pittman과 Lloyd, 1988)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고정자·김갑숙, 1996; 김경동 외, 1983; 이기영, 1984; 박미

석, 1996; Andrews와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고정자·김갑숙, 1996; 이희정·이숙현, 1995)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그 외 종교, 자녀수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의 관계

결혼상태는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의 질은 자존감, 행복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Barnett et al., 1992; Mills et al., 1992; Voydanoff와 Donnelly, 1989; Williams, 1988),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고은숙·김명자, 1993; Gove, Hughes와 Style, 1983) 심리적 불안, 우울 등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Williams, 1988). 특히 결혼의 정서적 질은 여성에게 더 중요하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명자·박성연, 1989; 최규련, 1993; Voydanoff와 Donnelly, 1989). 황현주(1994)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복지감 및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만족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박미석, 1996; 이희정·이숙현, 1995; Andrews와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Hirsch와 Rapkin, 1986). 특히 Berry와 Williams(1987)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로분석을 통해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입증하였다. 이기영(1984)은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생활만족에 가장 기여도가 크다고 하였으며, 김영희(1992)의 연구에서도 가족자원이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서정아·한경혜(1989)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들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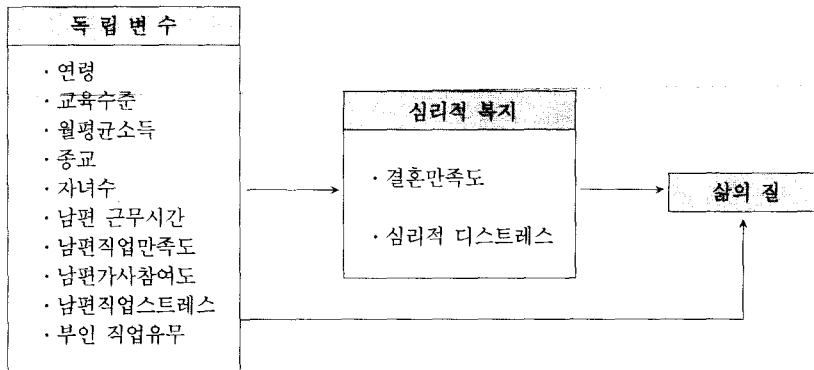
삶의 질은 인간이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자녀수, 종교,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만족도, 그리고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독립변수는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복지를 매개변수로 보고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결혼만족도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적용시켰다. 삶의 질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변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부부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는 결혼만족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독립변수들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독립변수와 심리적 복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하며,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독립변수가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독립변수와 부부의 심리적 복지가 부부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4〉 독립변수와 심리적 복지가 부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측정도구 작성 후 1997년 7월 중·고생을 둔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1997년 11-12월에 걸쳐 부산시에 거주하는 7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 방법은 초·중·고등학교 각 2개교 학생들을 통하여 부모님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40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외 훈련받은 대학생이 가정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다음날 회수하는 방법으로 30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526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나, 한쪽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기재 누락이 많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434쌍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 3.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부부의 연령, 부부의 교육수준, 부부의 종교, 남편의 직장 만족도, 남편의 일일근무시

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남편의 가사참여도, 월평균소득, 결혼지속연수, 자녀수, 부인의 직업유무 등을 채택하였다.

그 중 남편의 직업만족도는 4점 척도로 직업생활에 대해 아주 불만족할 경우는 1점, 아주 만족할 경우는 4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는 Rook와 Dooley(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남편이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즉 직장에서 해고, 일시적 휴직 등의 직업상실, 사업실패, 직장상황 악화,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하여 경험여부를 알아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심리적 복지

####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Olson 등(1982)의 ENRICH (Enrich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의 하위영역인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척도를 수정하여 8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 영역에는 인성 특성, 역할책임,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재정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 성 관계, 배우자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아주 불만족에 1점, 아주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남편연령	34세 이하	31	7.1	부인연령	34세 이하	76	17.5
	35 - 39세	82	18.9		35 - 39세	121	27.9
	40 - 44세	121	27.9		40 - 44세	130	30.0
	45 - 49세	112	25.8		45 - 49세	73	16.8
	50세 이상	88	20.3		50세 이상	34	7.8
남편학력	초등학교	10	2.3	부인학력	초등학교	25	5.8
	중 학교	41	9.4		중 학교	80	18.5
	고등학교	185	42.6		고등학교	197	45.5
	전문대학	29	6.7		전문대학	32	7.4
	대 학교	137	31.6		대 학교	92	21.2
	대 학 원	32	7.4		대 학 원	7	1.6
남편종교	기 독 교	37	8.5	부인종교	기 독 교	55	12.7
	천 주 교	33	7.6		천 주 교	47	10.8
	불 교	211	48.6		불 교	229	52.8
	무 교	151	34.8		무 교	100	23.0
	기 타	2	0.5		기 타	3	0.7
남편가사 참여도 <sup>1)</sup>	하지않음	40	9.2	남편가사 참여도 <sup>2)</sup>	하지않음	57	13.1
	안하는편	112	25.8		안하는편	103	23.7
	조 금 함	224	51.6		조 금 함	222	51.2
	많 이 함	58	13.4		많 이 함	52	12.0
남편 직업 스트레스 <sup>1)</sup>	있 다	199	45.9	남편 직업 스트레스 <sup>2)</sup>	있 다	205	47.2
	없 다	235	54.1		없 다	229	52.8
남편근무 시 간	8시간 이하	150	34.6	월평균 소 득	150만원 미만	69	15.9
	9 - 10 시간	179	41.2		150-200 만원	108	24.9
	11시간 이상	105	24.2		200-300 만원	115	26.5
남편직업 만족도	아 주 불만족	6	1.4		300-400 만원	43	9.9
	대체로 불만족	102	23.5		400만원 이상	49	11.3
	대체로 만 족	299	68.9		50	11.5	
	아 주 만 족	27	6.2	주부직업	있 다	227	52.3
가족형태	핵 가족	370	85.3		없 다	207	47.7
	확대가족	64	14.7	자 녀 수	1 명 이하	76	17.5
					2 명	229	52.8
			3명 이상		129	29.7	

1) 남편이 인지한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 직업 스트레스

2)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 직업 스트레스

\* 빈도 합계가 다른 것은 missing data 에 의한 것임.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남편은  $r=0.515\sim0.764$ 였으며, 부인은  $r=0.441\sim0.785$  사이로 나타나 8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

뢰도 계수는 남편은 cronbach  $\alpha = .89$ , 부인은 .88로 높게 나타났다.

## (2) 심리적 디스트레스

Pearlin과 Johnson(1977)의 우울척도, Birkowity와

Perkins의 디스트레스 척도, 권경희(1985), 조희선(1991)의 연구를 참고로 22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경우가 전혀 없으면 1점, 거의 항상 경험하면 4점을 부여하였다.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한 후 varimax 회전 방법으로 적고 회전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2개의 범주로 지적하여 2요인을 채택하였다. 총 설명변량은 45.1%였다. 요인 1(12문항)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요인 2(10문항)는 신체적 디스트레스라 명명하였으며, 본 분석에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내용에는 불안, 우울, 자존감 상실, 심인성 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분석 결과 남편의 경우는  $r=.509\sim.707$ , 부인의 경우는  $.397\sim.730$ 사이로 나타나 12문항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 부인 모두  $\text{cronbach } \alpha = .88$ 로 높게 나타났다.

### 3) 삶의 질

Olson과 Barnes(1982)의 삶의 질 척도를 수정하여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아주 불만족에 1점, 아주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다. 삶의 질 하위영역은 가족, 친구·친척, 건강, 가정생활, 교육, 시간, 종교, 매스컴, 경제, 지역사회, 직업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영역 중 직업생활에 관한 내용은 무응답이 많아 직업생활에 대한 2문항을 제외시키고 3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남편은  $r=.479\sim.70$ 이었으며, 부인은  $r=.404\sim.664$ 사이로 나타나 38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은  $\text{cronbach } \alpha = .94$ , 부인은  $.93$ 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rogram에 의해 수행

되었다.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과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text{cronbach } \alpha$ )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부부의 심리적 복지(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부부간의 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다. 둘째, 독립변수들이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과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으며, 셋째 인과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 수준의 차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남편과 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결혼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에 남편의 경우  $M=3.44$ , 부인은  $M=3.25$ 로 중간 이상이었다. 이는 고정자(1998), 김양희 외(1992), 문경실(199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나 김순주(1994), 최규련(1995)의 연구결과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부부간의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고정자, 1998; 김순주, 1994; 김양희 외, 1992; 문경실, 1995; 임정민 외, 1989; 최

<표 2>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 수준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		삶의 질	
	M(5점만점)	SD	M(4점만점)	SD	M(5점만점)	SD
남편	27.53(3.44)	5.36	18.34(1.53)	6.84	126.19(3.32)	18.93
부인	26.03(3.25)	5.10	19.75(1.65)	5.58	122.36(3.22)	20.28
t 값	3.98***		-3.88***		2.78**	

\*\* $P<.01$  \*\*\* $P<.001$



규련, 1988, 1993, 1995; Vannoy와 Philliber, 1992)와 일치하였으나, 김경신·김오남(199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4점 만점에 남편의 경우 M=1.53, 부인은 M=1.65로 중간 이하이었다. 부부간의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부인이 남편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최동숙(1989), Pearlin과 Johnson(1977), Williams(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각 성의 역할과 지위가 다르며, 남녀간에 역할 요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이 남편에 비해 정신 건강 상태가 취약하다는 성역할 이론과 사회역할 이론(Gore와 Mangione, 1983; Williams, 1988)을 지지한다.

삶의 질 수준은 5점 만점에 남편의 경우 M=3.32, 부인은 M=3.22로 중간 이상이였다. 이는 박미금(1994)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고정자(1998), 김경동 외(1983)의 연구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부부간의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편이 부인보다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이는 고보선·임정빈(1992), 박미금(1994), Pittman과 Lyold(1988)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부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Hayes와 Stinnett(1971)의 연구와

부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고정자(1988), 박미석(199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남편은 부인보다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이 높았으며,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나 부부간에 결혼생활에 있어 인지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편의 결혼과 부인의 결혼은 동일하지 않다는 Bernard(1982), Skolnick(1986)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까지 남성위주의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들은 수행해야 할 다중역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독립변수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들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중 명목변수로 된 종교유무와 직업유무는 가변수로 처리하여(있다=0, 없다=1)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결혼지속년수는(남편 r=.885; 부인 r=.928)서로 상관이 높아 결혼지속연수를 제외하고 연령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3> 변수간의 상관관계(남편)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남편 연령	1.00											
2. 남편 교육수준	-.318**	1.00										
3. 월평균소득	-.079	.439**	1.00									
4. 자녀수	.498**	-.214**	-.060	1.00								
5. 결혼지속연수	.885**	-.362**	-.072	.568**	1.00							
6. 종교유무	-.078	-.031	-.067	-.088	-.082	1.00						
7. 근무시간	.066	-.085	-.067	.018	.049	-.021	1.00					
8. 직업만족도	.078	.034	.173**	.056	.101	-.063	.049	1.00				
9. 남편직업스트레스	.033	-.092	-.130*	.004	.017	-.041	-.004	-.258**	1.00			
10. 남편가사참여도	-.019	-.000	-.043	-.089	-.030	-.005	-.036	.099	-.093	1.00		
11. 결혼만족도	-.063	.162**	.056	-.022	-.058	-.003	-.079	.189**	-.281**	.160**	1.00	
12. 심리적디스트레스	.034	-.053	-.067	.028	.057	-.023	.022	-.282**	.343**	-.030	-.354**	1.00
13. 삶의 질	-.021	.178**	.140*	.011	-.035	-.081	-.084	.360**	-.319**	.140*	.567**	-.435**

\*P<.01 \*\*P<.001

〈표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부인)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부인 연령	1.00											
2. 부인 교육수준	-.350**	1.00										
3. 월평균소득	-.037	.436**	1.00									
4. 자녀수	.527**	-.271**	-.032	1.00								
5. 결혼지속연수	.928**	-.440**	-.083	.587**	1.00							
6. 종교유무	-.123*	.034	-.043	-.145*	-.122*	1.00						
7. 직업유무	-.084	.063	-.047	-.001	-.093	.060	1.00					
8. 남편직업스트레스	.037	-.113	-.111	.002	.018	-.017	-.077	1.00				
9. 남편가사참여도	-.041	.057	-.059	-.083	-.048	-.030	-.135*	-.011	1.00			
10. 결혼만족도	-.089	.288**	.156**	-.082	-.104	.042	.041	-.181**	.263**	1.00		
11. 심리적디스트레스	.068	-.089	-.038	.058	.062	-.009	-.011	.182**	-.082	-.405**	1.00	
12. 삶의 질	.042	.246**	.164**	.002	-.006	-.061	.079	-.185**	.137*	.605**	-.400**	1.00

\*P&lt;.01 \*\*P&lt;.001

(표 3, 4 참고).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배제되었다. 또한 오차항간의 독립성 검증을 위하여 Durbin-Watson test를 한 결과 그 값이 1.843에서 2.033사이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 분석자료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만족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남편의 가사참여도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 직업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1.2%였다. 이는 남편의 연령과 소득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이화진(1995)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인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였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5.2%였다.

이상에서 교육수준,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한다는 이정우(1980), 이화진(1995)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교육수준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선행 연구(김경신, 1996; 김양희 외, 1992; 한경미, 1995; Berry와 Williams, 1987)와 일치하며, 부부가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Emery와 Tuer(199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권위적 관계라기보다는 동반자적, 우애적 관계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만족도와 남편의 직업스트레스였으며 이 변수의 설명력은 13.7%였다. 즉 직업만족도가 낮고 직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손상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만족도와 남편의 정신건강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황현주(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표 5〉 독립변수들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변 수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	
	남 편 $\beta$	부 인 $\beta$	남 편 $\beta$	부 인 $\beta$
남편(주부)연령	-.050	.000	.026	.022
남편(주부)교육수준	.135*	.235***	.000	-.061
월평균 소득	-.037	.044	.022	.000
자녀수	.000	.021	.046	.028
종교 유무	-.000	.047	.000	.057
남편 가사참여도	.125**	.259***	.022	-.067
남편 직장스트레스	-.205***	-.137**	.285***	.167***
남편 근무시간	-.049	-	.027	-
남편 직업만족도	.142**	-	-.216***	-
부인 직업유무	-	.047	-	.011
회귀상수	28,653	20,912	11,664	14,888
Adjusted R <sup>2</sup>	.112	.152	.137	.028
F 값	7.076***	10.685***	8.655***	2.551*
D-W 계수	1.968	1.981	1.968	1.843

\*P<.05    \*\*P<.01    \*\*\*P<.001

는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변수로 설명력은 2.8%였다. 즉 남편이 직업생활에 있어 부정적인 일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인들은 심리적 손상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과 가정 두 영역은 독립적이지 않고 한 영역에서의 사건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Renshaw(1976)의 견해를 지지한다. 또한 남편의 직업생활에서의 경험은 배우자의 불안수준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Burke, Weir와 Duwors, 1980; Jones와 Fletcher, 1993)와 일치하며 배우자간에 스트레스가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독립변수와 심리적 복지가 부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와 심리적 복지가 부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만족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였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0.9%였다.

독립변수에 심리적 복지를 첨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직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상쇄되고 남편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0.9%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총 설명력은 41.8%였다.

부인의 경우 독립변수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였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0.2%였다. 독립변수에 심리적 복지를 첨가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는 상쇄되고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 설명력은 30.1%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총 설명력은 40.3%였다.

따라서 부부의 삶의 질에는 독립적 변수보다는 심리적 복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리적 복지 중 긍정적 측면의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표 6〉 독립변수들과 심리적 복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남 편		부 인	
	독립변수 $\beta$	심리적복지 $\beta$	독립변수 $\beta$	심리적복지 $\beta$
남편(주부)연령	-.000	.005	.010	.005
남편(주부)교육수준	.137**	.069	.209***	.075
월평균 소득	.000	.023	.064	.056
자녀수	.033	.026	.057	.052
종교 유무	-.069	-.080	-.058	-.071
남편 가사참여도	-.094	.046	.142**	-.001
남편 직장스트레스	-.220***	-.066	-.152**	-.050
남편 근무시간	-.088	-.054	-	-
남편 직업만족도	.269***	.172***	-	-
부인 직업유무	-	-	.088	.071
결혼만족도	-	.425***	-	.505***
심리적 디스트레스	-	-.194***	-	-.173***
회귀상수	117.424	78.762	107.667	82.801
Adjusted R <sup>2</sup>	.209	.418	.102	.403
F 값	12,508***	26,682***	6,895***	29,114***
D-W 계수	1.946	2.033	1.916	1.969

\*P&lt;.05 \*\*P&lt;.01 \*\*\*P&lt;.001

#### 4.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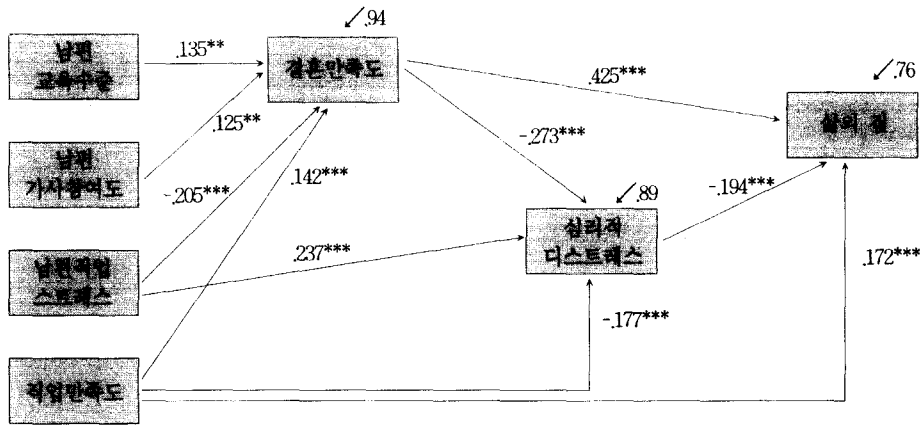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자녀수, 종교유무, 직업유무, 남편의 직장 스트레스, 근무시간, 직업만족도, 남편 가사참여도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심리적 복지(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인과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beta$ 계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그림 2〉〈그림 3〉과 같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남편의 경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였다. 즉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높고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남편의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1.8%였다. 그 외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만족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결혼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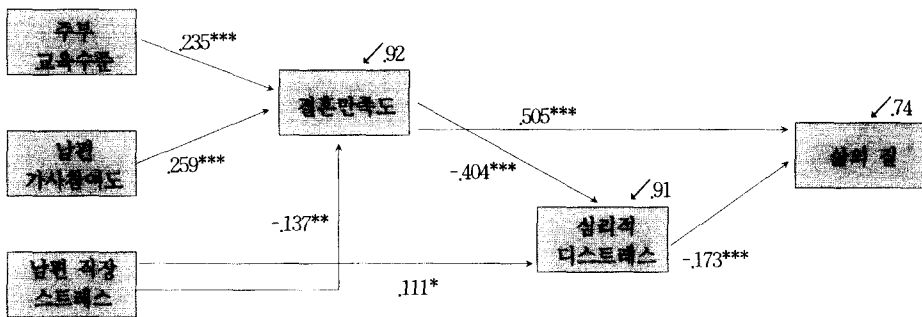
도를 통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만족도, 직장스트레스,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높고 직장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이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직업만족도가 낮고, 남편의 직장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남편은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이것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변인들의 총인과 효과를 살펴보면(표 7)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결혼만족도였다. 이 변수는 직접효과  $\beta=.425$ 에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  $\beta=.053$ 를 합하여 총 효과는  $\beta=.478$ 이었다. 다음은 직업만족도로 직접효과 .172에 결혼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 .060,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 .034를 합하여 총 효과는  $\beta=.266$ 이었다.

부인의 경우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였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고



<그림 2> 인과모형(남편)



<그림 3> 인과모형(부인)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0.3%였다. 그 외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통하여,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직업스트레스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으며,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부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며, 이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직업스트레스가 높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높아지며, 이것이 삶의 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 수준이 낮아진다.

변인들의 총 인과효과를 살펴보면<표 8> 결혼만족도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이 변수는 직접효과 .505에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 .070을 합하여 총 효과는  $\beta = .575$ 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직접효과( $\beta = -.173$ )만 있었으며, 다음은 남편의 가사참여도( $\beta = .131$ ), 부인의 교육수준( $\beta = .119$ )순이며, 결혼만족도를 통한 간접효과만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남편·부인 모두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나 여러 선행연구와(고정자·김갑숙,

〈 표 7〉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효과 (남편)

변 인	총 효 과	직접효과	간 접 효 과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
남편의 연령	-	-	-	-
남편의 교육수준	.060	-	.060	-
자녀수	-	-	-	-
월평균소득	-	-	-	-
종교유무	-	-	-	-
근무시간	-	-	-	-
직업만족도	.266	.172	.060	.034
남편 직장스트레스	-.130	-	-.087	-.043
남편 가사참여도	.053	-	.053	-
결혼만족도	.478	.425	-	.053
심리적 디스트레스	-.194	-.194	-	-

〈 표 8〉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효과 (부인)

변 인	총 효 과	직접효과	간 접 효 과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
부인의 연령	-	-	-	-
부인의 교육수준	.119	-	.119	-
자녀수	-	-	-	-
월평균소득	-	-	-	-
종교유무	-	-	-	-
남편 직장스트레스	-.088	-	-.069	-.019
남편 가사참여도	.131	-	.131	-
결혼만족도	.575	.505	-	.070
심리적 디스트레스	-.173	-.173	-	-

1996; 박미석, 1996; 이희정·이숙현, 1995; Andrews와 Withey, 1976; Berry와 Williams, 1987; Campbell et al, 1976; Hirsch와 Rapkin, 1981) 일치한다. 또한 결혼만족도 역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은숙·김명숙(1993), 김명자·박성연(1989), 최규련(1993), 황현주(1994), Voydanoff와 Donnelly(1989)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지지하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434 부부쌍을 대상으로 한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로,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은 결혼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적용시켰다. 그리하여 부부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독립변수가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부인들이 남편보다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이 낮으며,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혼여성들은 다중역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사고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남녀 차별 요인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 만족도,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 남편의 가사참여도였다. 부인의 경우는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교육수준과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높았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경우, 직업만족도와 남편의 직업스트레스였으며, 부인의 경우는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와 같이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직업 스트레스는 남편 자신 뿐 아니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한 영역에서의 경험은 자신의 다른 영역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의 체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부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남편의 경우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 만족도,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였으며, 그외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만족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남편의 가사 참여도, 결혼만족도 변수가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인의 경우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스였으며, 그 외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남편의 가

사 참여도, 결혼만족도 변수가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인과모형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 변수보다는 주관적 심리적 변수가 삶의 질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로 말미암아 부부가 같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부관계에서의 상호 역할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과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폭넓은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의 경우는 직업만족도 변수가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편의 직업 스트레스 또한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의 구조 조정과 퇴출 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가족해체와 가족 동반 자살 등의 가족병리현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안 마련과 더불어 근무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등 지원체제를 확대시켜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근로자 실업 대책과 가족 소득 보조, 가족 수당, 탁아시설 확대, 가족상담 등 가족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가족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2) 고은숙·김명자(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 3) 고정자(1994). 맞벌이 부부 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 4) 고정자·김갑숙(1996). 가족응집성, 적응성, 스트

- 레스 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5) 고정자·김갑숙(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2.
  - 6) 고정자(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7) 공보처(1995). 세계일류로 가는 길 -21세기 삶의 질 지표-.
  - 8) 권경희(1985). 한국도시 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정동·이홍구·신도철(1983). 한국인의 가치의 식과 삶의 질, 이만갑교수 회갑기념 논총, 461-499.
  - 10)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11) 김순주(1994). 가정 내 남편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부의 기대 및 평가와 결혼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양희·박충선·서동인·신화용·조병은·최규련(1992).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 285-305.
  - 13) 김영희(1992).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긴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0(2), 139-158.
  - 14)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 15)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문경실(1995). 남편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1), 1-18.
  - 18) 박미령(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박미석(1996). 중년기 남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4.
  - 20) 소연경·문숙재(1983).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43-53.
  - 21)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 22) 신기영·옥선화(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 23) 안선영(1988). 취업주부의 가정 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 25) 이정숙(1990). 기혼 여교사의 가정생활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분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이정우·최덕경(1992).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 문제 인지와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15-130.
  - 27) 이희정·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28) 이화진(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임정빈·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17-132.
  - 30) 장재정(1987). 중년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및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1)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3.
  - 32) 조수영(1996). 주관적 지표에 의한 '삶의 질' 측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



- 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34) 진미정·옥선화(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1-14.
  - 35) 최규련(1987).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6)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37)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8-114.
  - 38)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65-179.
  - 39) 하재구(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0) 한경미(1995). 기혼 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 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41)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정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2) Andrews, F. M. &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 43) Barnett, R. & Baruc, G. K.(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Feb.), 29-40.
  - 44)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Feb.), 107-116.
  - 45)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46) Coverman, S. & Sheley, J. F.(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May), 413-422.
  - 47) Hanson, S. L. & Sloane, D. (1992). Young childre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Nov.), 799-811.
  - 48) Hawkins, J. L.(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4).
  - 49) Hirsch, B.j & Rapkin, B. D.(1986). Multiple roles, social networks, and woman'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37-1247.
  - 50) Houseknecht, S. K. & Macke, A. S.(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Aug.), 675-691.
  - 51) Joe, F Pittman, Sally, A. Lloyd(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Feb.), 53-67.
  - 52) Jones, F., & Flectcher, B. C.,(1993). An employment study of occupational stress transmission in working couples, *Human Relation*, 46(7).
  - 53) Mills, R. J., Grasmick, H. G., Morgan, C. S. & Wenk, D.(1992). The effect of gender, family satisfaction, and economic strain on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Relation*, 41, 440-445.
  - 54) Olson, D. H. & Barenes, H.(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55) Pleck, J. H.(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Sage Publications.
  - 56) Rice, A. S. & Tucker, S. M.(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57) Spitze, G.(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Aug.), 595-618.

- 58) Ulbrich, P. M.(1988). The determinants of depression in two-income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Feb.), 121-131.
- 59) Vannoy, D. & Philliber, W.(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Feb.), 387-398.
- 60) Voydanoff, P. & Donnelly, B. W.(1989). Work and 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Nov.), 923-932.